

# 뉴미디어 국제세미나를 마치고

趙 益 成

(한국데이터통신(주) 경영관리부장)

## ① 머 리 에

지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한국데이터통신(주) (이하 '데이콤')가 주최한 '뉴미디어 국제세미나'가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국제 세미나는 '정보통신의 해'를 기념하고, 데이콤 창립 5돐의 의의를 되돌아보며, 미래의 발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개최한 최초의 대규모 정보통신관련 국제행사라는데에 큰 의의가 있었으며, 관계기관의 후원과 일반국민들의 열띤 관심 및 세미나 참가강사들의 수준높은 주제발표가 어우러져서 성공적인 세미나로 끝을 맺었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뉴미디어 국제세미나를 준비했던 데이콤의 담당자로서 세미나와 관련하여 몇가지의 의미를 되새겨 봄으로서 반성과 아울러 결과보고에 갈음하고자 한다.

## ② '정보통신의 해' 기념행사

주지하다시피 금년은 우리 나라 정보 통신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체신부에서 지정한 '정보통신의 해' 원년이다. 이를 기념하여 국내 제관련 기관에서는 여러 행사를 열고 있다. 데이콤에서도 '미래정보사회 논문모집'이나 '정보사회 퍼즐퀴즈'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들은 국내에만 치우친 감이 있어, 국제적으로도 '정보통신의 해'를 홍보

할 수 있는 행사가 없는지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관련인사들의 의견을 구한 결과, 미래 정보사회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뉴미디어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뉴미디어는 선진각국의 경우 매우 활발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이미 각종의 서어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번 국제세미나는 이들 선진기술이나 정책을 소개하고, 정보통신마인드의 확산 및 관련산업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한 행사로서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사명칭을 "뉴미디어 국제세미나(International Seminar on New Media & Information Society)"로, 주제를 뉴미디어와 정보사회로 결정하고, 국내외 관련기관의 전문가를 초청, 주제 발표형식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 ③ 국제세미나의 개최

국내외 3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초청작업을 수행한 결과, 국내에서는 뉴미디어 국제세미나의 주관기관인 체신부의 이대순장관(당시) 및 윤동운 통신정책국장(당시), 그리고 과기처의 강민호박사, 연세대학교의 최정호박사와 데이콤백인섭 정보통신연구소장 등 여러분께서 발표를 해주셨다. 또한 해외의 경우에는 미국의 Telenet, CSC, NYNEX 및 Harvard대학 정보자원 연구소, 일본의 우정성, NTT, KDD, Mitsubishi 상

사, Intec 및 Yamato System개발, 또한 프랑스의 전기통신총국 및 Transpac, 그리고 영국의 GEC Computers등 4개국 13개 기관에서 14명의 강사들이 각기 자국의 뉴미디어 현황에 대한 발표를 맡아 주셨다.

이상의 각국 강사들은 '뉴미디어와 정보사회'라는 대주제하에 '뉴미디어와 가정생활', '뉴미디어와 산업발전', '뉴미디어와 사업사례' 및 '뉴미디어와 정책환경' 등 4개의 소주제별로, 각각 자국의 뉴미디어 동향이나 정책 및 발전모델 등에 대한 뜻깊은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세미나에 참여한 청중들의 뉴미디어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웠던 점은 기업체, 연구소, 정부기관 및 대학교, 심지어는 국내주재 외국기관 등 각계각층에서 기대이상의 관심을 표시하여 줌으로써, 연일 대회장이 참가청중으로 메워졌다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역시 좋은 내용의 행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외면하지 않고 찾아준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원고들을 모아서 세미나 강연록(Proceedings)을 발간하였다. 동 강연록은 세미나에 참여한 청중들에게는 물론이고, 그외에도 국내의 각 대학 및 연구소 등에 배포하여 국내 뉴미디어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

움이 되도록 도모하였다.

#### ④ 국제세미나를 마치고

이상에서 간략하게나마 뉴미디어 국제세미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세미나를 끝마친 지금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아쉬웠던 점도 많으나, 무엇보다도 동세미나의 개최결과로 필자는 아래와 같은 소기의 성과가 있었기를 기대하고 있다.

즉 첫째로 뉴미디어에 대하여 관련기관 종사자 및 일반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고, 둘째로 세미나참가 해외강사의 주제강연을 통하여 해외정보통신의 최신동향을 파악하고,

셋째로는 뉴미디어에 대한 공동인식의 장을 통하여 국내 뉴미디어산업의 도약의 계기 및 뉴미디어 서서비스의 조기확산을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가 있었다면 더없이 큰 보람이며 영광일 것이다.

끝으로 그간 뉴미디어 국제세미나에 대하여 열띤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관련기관 종사자 여러분과, 휴일도 없이 세미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실무작업에 애를 썼던 P군, J군 및 K양, 기타 모든 관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잘것 없는 글을 끝맺고자 한다.

## CCITT '87 SG7 회의 참관기

朱 洪 烈  
(한국대이타통신(주)주임연구원)

### ① 서 언

1987년 6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 동안 국

제 통신 연합(ITU)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신전화 자문위원회(이하 CCITT라 칭함)의 공중 데이터망(PDN: Public Data Network) 과 관련된 통신프로토